

제 62회 삿포로 눈축제 그 열기의 현장으로♪

대전광역시 얼음상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모습을 재현한 얼음상으로 대전시 전경과 한빛탑을 가로 15m, 세로 5m 높이의 얼음조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 눈축제 그 시작은?

1950년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6개의 설상을 오도리공원에 설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눈싸움, 눈조각전, 카니발 등과 함께 개최되었는데 5만명 남짓한 인파로 예상 외의 대인기였습니다. 이후 점차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며 일본 최대 겨울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매년 2월이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홋카이도 최대 겨울 축제인 '삿포로 눈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일본의 국보인 혼간지 비운각에서부터 중국 베이징의 천단공원, 만화영화 캐릭터 등에 이르기까지 252개의 눈 조각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난 10월 삿포로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대전광역시를 이미지한 얼음상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축제 기간동안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전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과 관련한 대표적 관광명소의 홍보활동도 펼쳤습니다.

눈축제 기간에는 국제 설상조각 경연대회도 열리는데, 올해로 38회를 맞은 대회에는 한국,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13개국 16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4일간의 주어진 시간에 눈조각 작품을 만든 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우승은 북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준우승은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3번째로 출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석굴암을 재현하였고, 자매도시 회원 자격으로 첫 출전한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 수호신인 '치우천왕'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눈축제는 그 중심인 오도리 공원 이외에도, 눈을 이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쓰도무 회장과 스키노 회장에서 개최되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왼> 홋카이도 최대 환락가 스키노에 설치된 얼음 조각상의 모습

❖❖ 삿포로 눈축제에는 눈조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



☆ **스케이팅장**
가족, 연인과 함께 스케이팅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 **스노보드 점프대**
일본 최고 레벨의 스노보드 스키점프 연기를 눈 앞에서~



☆ **중기기관차 체험**
모형 중기기관차를 타고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봐요~



☆ **먹거리 코너**
홋카이도 식자재로 만든 맛있는 요리도 가득~



☆ **흡연실**
담배는 각 구역마다 설치된 흡연실에서~



관광대국 홋카이도



뮤지컬 라이온킹



중국 천단공원



일본 혼간지 비운각



일본 TV 만화 '사자에상'



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 지사 예방

지난 2월 7일, 삿포로 눈축제를 맞이하여 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의 서장은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이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에서 다카하시 지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장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올해는 양 지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장은 회장도 올해 4월에 치러질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다시 뽀뽀 바란다는 응원과 함께 홋카이도와 서울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는 양 지역의 민간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좌)기념품을 교환하는 서장은 회장과 다카하시 지사
(우)친선교류협회 회원들과 다카하시 지사



신세계 백화점, 홋카이도 물산전 개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3개의 점포에서 홋카이도 물산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물산전에서는 홋카이도의 관광 홍보와 함께 홋카이도 특산물을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대자연 속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이용한 특산물 중에서도 이번엔 선보이는 것으로는 해산물 (새우, 게, 가리비) 고로케, 홋카이도라면, 슈크림, 니혼슈 등입니다. 피곤한 일상의 기분 전환으로 물산전을 찾아, 홋카이도의 맛을 즐기며 잠시나마 홋카이도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물산전 개최기간>

- 강남점 2/25(금)~3/3(목)
- 본점 3/4(금)~3/10(목)
- 경기도점 3/18(금)~3/24(목)



세계 유일의 이동식 돔구장 삿포로 돔

2002년 한일 월드컵 예선전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경기가 치러진 삿포로 돔. 이곳은 한일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삿포로시가 과감한 예산투자로 2001년 완공한 세계 유일 축구와 야구 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이동식 돔구장입니다. 현재 J리그 축구팀인 콘사도레 삿포로와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팀인 닛폰햄 파이터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가 없는 날은 대형 뮤지션들의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삿포로 돔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고정 객석수가 4만 1484석, 최대수용인원은 5만 3796명에 달합니다.

추위와 눈에 둘러싸였던 삿포로도 서서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3월 25일부터는 퍼시픽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2011년의 리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약 40분, 삿포로역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25분이면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삿포로 돔을 찾아 스포츠 경기도 즐기고 돔투어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축구장으로의 변신!

돔 안의 야구장이 세로 120m, 가로 85m, 무게 8300톤의 거대한 천연 잔디 축구장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약 8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바깥 때마다 드는 비용은 엔화로 약 400만엔이 든다고 합니다.

야구장

축구장

돔투어, 전망대

경기나 콘서트가 없는 날에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50분간의 돔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에스케일레이터를 타고 53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장대한 경기장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전망대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그 세번째 이야기

소야(宗谷), 루모이(留萌) 지역

홋카이도(稚内)항구 북방과제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반 아치식 돔. 높이가 14m, 총길이 427m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경관과 구조입니다.



소야 구릉의 빙하 지형

약 2만년 전의 최종 빙하기에 형성된 빙하 본래 특징적인 지형으로 빙하 주변부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생긴 것입니다.



데시오강(天塩川)

길이 256km의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카누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모이 청어가도

청어잡이로 성황을 이루었던 당시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시케(増毛)의 역사적 건물

메이지 시대부터 영업을 해 온 상가와 전쟁전인 1936년 건축된 마시케 초등학교 등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홋카이도의 새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발신지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흥분과 감동으로 채워주는 삿포로 돔 안의 시설들을 살펴 볼까요?

1층-홋카이도 푸드 레스토랑, 상품숍, 카페, 타카소, 메모리얼 코너, 트레이닝룸, 매점 등
2층-매점 / 3층-키즈파크, 패밀리시트, 베이비 코너 등

- ▶ **상품숍**-콘사도레 삿포로와 닛폰햄 파이터즈의 공식 상품은 물론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의 상품과 메이저리그 상품, 삿포로 돔 오리지널 상품 등 다양한 물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 **메모리얼 코너**-삿포로 돔 5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설치된 코너로, 개장 당시부터의 역사를 기념품의 전시로 소개하고 있으며 기증된 기념품과 사인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 ▶ **키즈파크**-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판타지를 테마로 한 대형복합 놀이시설로, 경기가 있는 날은 물론 이벤트가 없는 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패밀리시트**-키즈파크에 병설된 테이블이 딸린 관전석입니다. 아이를 동반하더라도 안심하고 경기를 관전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벤치형으로 5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숍



메모리얼 코너



키즈파크



패밀리시트

닛폰햄 파이터스의 루키

사이트 유키(齊藤佑樹)



2011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개막을 앞두고 홋카이도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일명 '손수건 왕자'로 유명세를 떨친 사이트 유키(齊藤佑樹) 선수입니다. 사이트 선수는 와세다 실업고 재학 시절, 일본 전국고교 야구대회인 고시엔에서 연장전과 재경기 끝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당시 221개의 볼을 던지고도 연장 11회말 149km 볼을 던질 정도의 강철 어깨를 소유한 그는 지난 12월 닛폰햄 파이터스의 유망주로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유명세에 걸맞게 이날 입단식은 5개 방송국이 생중계 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려 8000명에 달하는 팬들이 입단식을 찾았습니다.

삿포로돔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sapporo-dome.co.jp/foreign/index-kr.html>